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궁궐 근대건축물은 정치권력의 문화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배경”

하면서, 근대건축물이 들어선 이 기간은 우리 전통 사회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 되는 기간이었다. 그 광범위한 변화 과정을 상징적이며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실체가 곧 궁궐의 근대건축물이기도 했다. 때문에 근대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지어지던 시기의 과정적인 성격과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1900년을 전후하여 지어진 경운궁의 근대건축물은 대부분 대한제국에서 지은 건축물로 황실의 다양한 공적, 사적 행사의 장소였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한 왕조의 마지막을 증언하는 장소였

다. 얼마 후 이 건축물 중 상당수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전통세계의 해체와 새로운 세계로의 교체가 본격화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은 경복궁, 창경궁을 비롯하여 여러 소규모 궁에 광범위하게 분포했고 온실, 병원, 주택, 은행, 박물관 등 새롭고 다양한 근대적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었다. 이들 건축물은 그 장소와 용도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서둘러 정착시키고 안정시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에는 새로운 변화의 정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지어졌다. 경복궁 근정전 앞의 구조선총독부 청사는 모든 권력과 사회 체계가 철저히 변화되었고 공고해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듯 웅장하면서 섬세한 돌 건축의 미학적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위치 선정과 물리적 크기라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것은 주로 미술관이었다. 궁궐은 이제 정치권력의 문화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이 되었다. 궁궐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무대 장치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 후 1990년대까지 궁궐에는 박물관이라는 또 다른 문화시설이 지어졌다. 경복궁에는 두 번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어졌고, 경희궁에는 지자체의 박물관이 들어섰다. 정치권력의 주체는 바뀌었지만 궁궐에 대한 시각은 1930년대와 해방 이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도 이전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으로 궁궐을 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석조전, 정관헌, 대온실,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이 건축물들은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 궁궐에 지어졌던 근대건축물 중 현존하는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궁궐에는 전통 한옥과는 구별되는 수많은 근대건축물이 지어졌고, 또 사라졌다.

500여년 동안 형성된 궁궐 체계를 해체